

한국발명진흥회-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맞손



<사진설명 :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오른쪽)과 신호철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장(왼쪽)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는 오늘 26일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원장 신호철)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한국발명진흥회의 대표 지식재산(IP) 평가 시스템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활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특허분석 평가시스템(SMART5)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과 함께 한수원의 지식재산(IP) 확보 방안 및 기술사업화를 컨설팅하고, 지식재산(IP)의 전략적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특허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으로 혁신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 기관으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허평가 시스템인 SMART5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한수원이 지식재산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발명진흥회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R&D의 질적 성장 및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